

제1절 농경

1. 농경기술

1) 개요¹¹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농경기술의 발달과정은 곡물의 재배방식과 농기구의 변천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기구는 기원전 3세기 이후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목제 농기구가 철제농기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보급된 팽이, 따비, 보습, 낫과 같은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쟁기와 같은 축력 농기구의 등장은 농경기술사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목제 농기구도 사용되었고, 농경방식 또한 휴한농법(休閑農法)¹²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연작상경전(連作常耕田)의 농경방식이 보급되었고, 고려 후기에 제언(堤堰)의 신축, 보수와 방천(防川), 거(渠), 방조제(防潮堤)사업으로 집약되는 수리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수리시설의 확충과 저습지 개발은 신종자의 도입 배경을 제공하거나, 수경직파법(水耕直播法), 이앙법(移秧法), 건답법(乾畱法) 등의 재배 방법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가축의 분뇨나 초분(草糞), 화분(火糞), 녹비(綠肥) 등을 활용하는 시비법의 발전을 배태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5~16세기에는 농기구도 다양하게 발전, 체계화되었다. 갈이기구로는 쟁기, 곡팽이, 따비가 활용되었으며, 파종과 이앙에는 쇠스랑, 팽이, 써레, 번지, 고무래, 밭고수래, 끙개, 담태, 뒤옹박 등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물대기와 관련한 농기구로는 맞두레, 용두레가, 김매기에는 호미가 일반화되었으며, 수확에는 낫이, 탈곡에는 도리깨가, 정곡에는 키, 저장에는 섬이 사용되었다. 재배작물로는 대마, 벼, 기장, 수수, 조, 피, 콩, 팥, 녹두, 보리, 밀, 참깨, 메밀, 완두 등이 있었다. 또 당시의 시비 기능은 객토(客土), 녹비(綠肥), 인분(人糞), 우마분(牛馬糞), 초목비(草木肥) 등을 넣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17세기의 조선 중기에 들어오면서 이앙법은 획기적인 보급을 이루게 되었다.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은 제초 횟수와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왔으며, 봇자리를 제외한 논에는 물을 빼고 밭으로 전환하여 다른 작물[특히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이른바 도맥이작(滔麥二作)을 가능케 하였다. 조선 중기부터 적극적으로 촉진되어 온 방천(防川), 제언(堤堰), 보(洑) 등의 저수시설이 지속

11. 본 글의 개요는 한반도에서의 농업기술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보편성을 알아보기 위해 배영동, 1996, 「농업기술의 역사」『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659-678쪽을 발췌, 요약하였다.

12. 휴한농법이란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고 농경지를 묵혔다가 지력이 회복되면 다시 경작하는 농경 방식으로써 대개 1~2년 정도 묵혔다가 1~2회 경작하는 방식이다.

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18세기 말에는 전국에 걸쳐 저수지가 축조, 재보수 되었다.

이 시기의 농기구는 조선 전기의 농기구 유형 외에 개상, 그네, 부뚜, 풍구 등 탈곡과 정곡과 관련한 농기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킨 점과 종전의 ‘긴 자루호미’ 대신에 ‘짧은 자루호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편 노동력 동원 방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가구당 경작 면적이 확대되면서, 종전의 가족 노동형태 대신에 ‘두레’, ‘풀앗이’와 같은 공동 협업 노동방식이 적극 수용, 보급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삼정(三政)의 문란과 함께 광작(廣作)의 발생에 따른 소농(小農)의 위상 약화로 이농 현상과 함께 화전민의 증대를 가져오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식민지배와 수탈에 따른 일본식 농법의 영향을 입기도 했으나, 여전히 전통농업기술의 근간은 유지되었다. 특히 일본인의 억압으로 두레 노동과 같은 공동 협업 노동 관행이 억압되고 가족 단위의 개별노동, 혹은 자본주의적 초기형태인 임노동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농민의 농토 박탈을 야기시켰으며, 수탈과 공출로 인한 농민의 경작 의욕 상실을 비롯해 농업기술의 자동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30년대 일본의 강요로 전통 이양법인 벌모심기(散植) 대신 줄모심기(正條植)가 성행했다. 또 족답식 탈곡기, 삽, 가마니 등의 농기구가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분뇨, 초목비, 퇴비, 객토 중심의 전통 시비법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시비법으로 전환되었다.

해방 후에는 농지개혁을 통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상당수의 소작농이 일정량의 농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유의식을 촉발시켜 농업기술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농업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벼농사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품종개량이 촉진돼, 그 결과 통일벼와 유신벼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다수확품종으로서 만성적 식량난에 허덕이던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토지구획정리작업과 함께, 농업용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개 수리 사업이 전폭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쌀농사의 획기적인 보급으로 맥작 농업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대신에 특용작물의 재배가 두드러져, 논농사와 함께 1년 2작 혹은 1년 3작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2) 농경기술의 실제

(1) 벼농사와 작업과정

① 볍씨 담그기

경칩 무렵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볍씨 고르기를 시작으로 벼농사 준비를 한다. 청명 무렵에 볍씨 담그기를 하는데, 이때 달걀이 뜰 만한 비중의 소금물에 볍씨를 담근다.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어서 썩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4~5일이 지나면 볍씨에 촉이 나오게 된다. 촉이 나오기 전에 도로 건져내 가마니 따위에 넣어 물을 빼지게 한 뒤 따뜻한 곳에 하룻밤을 재운다. 볍씨의 양은 한 마지기에 대략 4되 정도 소요된다.

② 못자리판

물대기가 쉬운 논 가장자리를 못자리판으로 정한다. 못자리를 하기 전에 물을 대어서 가래로 깊게 갈아엎고 논바닥이 편편하도록 삼는다[이를 ‘건생기 친다’고 한다.]. 이 같은 ‘건생기 작업’을 2회에 걸쳐 실시한 후, 가래로 2회가량 갈아서 흙과 풀을 배합시킨 후물을 대고 써레질을 하는데 이를 ‘논 삫는다’라고 한다. 써레질을 할 때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 번씩,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가로로 하는 써레질을 ‘곱써레 놓는다’라고 하며 세로로 하는 써레질을 ‘장써레 놓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번지를 사용하여 모판을 고르게 한 뒤 볍씨를 뿌린다. 볍씨를 뿌린 후 일주일가량이 지나면 물을 빼서 건조한다. 낮에 물을 빼면 새가 어린 볍씨 싹을 쪼아먹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밤에 뺀다. 이튿날 아침에 다시 물을 공급하고 밤에 물을 빼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③ 모심기

울진지역에서 모심기는 대개 하지를 전후해 행해진다. 모심기는 ‘올심기’와 ‘늦심기’가 있다. 보리를 수확한 논에는 늦심기를 하고 보리를 갈지 않은 논에는 올심기를 한다. 못자리를 한 후 모심기를 하기 전까지 농민들은 풀 넣기 작업에 전력을 다한 후[이를 풀시비한다고 한다] 가래로 갈아서 엎은 뒤 써레질한다. 한편에서는 못자리판에서 모를 쪘낸다. 모심기할 때 주로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벌모심기를 하며 논둑 양쪽에서 못줄을 잡아 심는다. 이때 모심기 노래도 흥겹게 불리며 새참을 먹을 때마다 ‘고시례’라 하며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던지는 습속이 있다.

④ 논매기

모를 심은 지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아시논매기[첫물논매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품앗

이가 이루어진다. 아시논매기는 호미를 사용하는데, 이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바닥을 깊이 파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복돋워 주는 데 있다. 두 번째 논매기를 두불 논매기라 하는데 대개 아시논매기를 한 후 일주일가량 뒤에 이루어진다. 이때 비로소 잡초제거가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대개 보름가량이 지난 후 세불 논매기가 행해진다.

⑤ 손질

7월 중순 무렵에는 논둑에 자란 잡초를 번다. 논둑에 풀이 우거지는 현상을 「우설이 진다」라고 한다. 이 무렵이면 각종 병충해와 벌레 따위가 몰려드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시로 피를 뽑으며 논둑의 풀을 베어낸다. 8월 중순 무렵에는 논의 물을 빼서 벼의 성장을 돋는다.

⑥ 벼 베기[수확]

대개 8월 하순 이후에 나락을 베기 시작한다. 물이 없는 논에서는 나락을 베어 논바닥에 나란히 깔아 놓는다. 무논일 경우에는 나락을 베어 묶어서 논두렁에 가지런히 놓는다. 3~4일 이 지난 후 나락이 적당히 마르면 집 마당으로 운반한다. 운송은 주로 지게로 져 날랐으며, 소를 이용할 때는 소등에 지르매를 엎고 그 위에 옹구지르매를 엎어서 날랐다. 집으로 날라 온 나락단은 끝데기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쌓는데 이를 「개린다」고 하며, 쌓아 올린 나락 더미를 「나락가리」라고 한다.

⑦ 타작

나락을 갈무리해 둔 「나락가리」를 헐어 타작하는데, 벗단을 새끼에 묶어 「햇돌」이나 「홀태」에 때려서 벼알을 뗈다. 이 작업을 「태질한다」라고 한다. 이삭이 수북하게 쌓이면 「깔꾸리」로 찌꺼기를 걷어내고 종가래로 펴 넘기면 한편에서는 「키질」로 부채질을 하여 먼지나 부스러기를 날려 보낸다. 나락은 가마니에 넣어 건조한 방이나 「뒤주[창고]」에 보관한다. 짚 부스러기에 남아있는 나락은 도리깨질이나 「벼훑이」로 일뜰히 훑어낸다. 해방을 전후하여 수동식 탈곡기가 등장해 수확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켰다.

⑧ 정미[방아찧기]

타작이 끝나면 마당에 명석을 깔고 말리거나 방바닥의 듯자리 밑에 깔아 말리기도 한다. 정미 작업은 주로 디딜방아나 연자매[연자방아] 또는 물레방아를 사용한다. 이듬해 못자리를 낼 볍씨를 보관한 방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볍씨로 사용하지 않으며, 대개 집안의 노인이 병이 깊어지면 우선 볍씨 가마니부터 다른 곳으로 옮긴다.

(2) 밭농사와 작업과정

① 고추

고추는 가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가 중부 아메리카이며, 우리나라에는 17세기 초엽에 전래 되었다. 울진지역의 내륙지역에서는 고추재배가 매우 성행하며, 또 농가의 주요한 수입원이자 환전 작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고추는 고온성 채소로 쑥을 틔우는 온도는 25°C 내외가 적당하며 토질은 보수력 있는 양토가 알맞다. 골을 만들 때는 지름이 한자 정도의 반원통형으로 골을 지어서 거름을 넣고 씨를 뿌린 뒤, 비닐을 덮은 후 흙으로 다져놓는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고추 모종을 재배한 뒤 이를 밭에다 옮겨심는 이양법이 성행한다.

고추는 대개 세 벌 따기와 네 벌 따기가 성행하며 초벌 따기 고추는 붉지 않은 까닭에 주로 찌개용이나 풋고추로 먹는다. 고추는 밭에 세워둔 채로 일일이 손으로 따 수확하며 고추나무는 잘 뽑아서 불쏘시개나 땔감용으로 사용한다.

② 마늘

울진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진 ‘육쪽마늘’은 당초 금강송면 왕피리 햇내마을에서 재배되는 종자용 마늘인데¹³ 구근(球根)이 크고 매운맛이 진하며, 껍질이 잘 벗겨지는 데다가 상온에서도 3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하며, 또 한지성 마늘로 바이러스 따위의 질병에도 강한 것으로 이름이나 있다. 왕피리 육쪽마늘은 대개 양력 10월경에 파종을 해, 이듬해 7월경에 수확을 하며, 4월과 5월에 걸쳐 아시매기와 두벌매기 등 제초작업을 한다.¹⁴

마늘은 겨울을 나기 위하여 벗짚을 흙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깔아주며, 이듬해 해동(解冬)과 함께 깔린 짚을 그대로 태운다. 이때 겨우내 서식하고 있던 각종 병해충을 제거하게 되며, 타고 남은 재는 퇴비[거름]와 함께 시비 역할을 하게 된다.

③ 밀농사

밀은 가을에만 갈며 경작과정은 보리같이와 거의 유사하다. 한로가 지나면 밀갈이 준비를 해서 입춘까지 씨를 뿌린다. 거름을 주고 뿌린 뒤 입춘 무렵 제초작업[지심매기]을 한다. 하지 무렵에 베며, 3~4일간 밭에 골고루 깔아서 말린 후 타작한다. 이때 도리깨를 주로 사용하며, 키질과 바람개비로 지푸라기를 제거한다.

13. 이종휘(72, 남, 근남면 매화면)씨는 왕피리 햇내 육쪽마늘의 우수성에 대해, “인근 삼척이나 정선지방의 종자를 심을 경우 연작가능 햇수가 2년에 불과하나 왕피리 햇내 마늘의 경우에는 5~6년간 연작을 해도 내구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4. 이학용(75, 남, 금강송면 왕피리 햇내마을)옹은 45년간 마늘을 재배해 온 마늘농군으로, 햇내 육쪽마늘의 우수한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름[축분+재]을 충분히 넣어 지력을 키워야 하며, 가뭄을 견뎌 낼 수 있는 질땅[진흙]성분의 토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④ 보리농사

보리는 주로 가을보리를 많이 했다. 벼 수확 후 이모작으로 하거나 대개는 서숙갈이와 연작을 한다. 상강이 될 무렵에 파종하며, 파종을 하기 전에 번지로 밭을 고르는 써레질을 한다. 파종이 끝나면 두엄을 쳐내어 웃거름을 주며 정·이월경에는 보리밟기한다. 보리밭매기는 대개 경칩 무렵[음 2월경]에, ‘아시매기[초벌매기]’를 망종 무렵에 보리밭 깜부기 뽑기 시작으로 보리 베기를 행한다.

보리 베기가 끝나면 지게로 마당에 옮겨 도리깨로 탈곡을 했으며, 발로 밟는 탈곡기가 보급된 이후에는 이를 주로 이용했다. 탈곡이 끝난 보릿짚은 보리짚가리를 만들어 놓았다가 땔감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마구간[외양간]이나 돼지우리에 넣어 가축의 잠자리용 깔개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것이 가축 분뇨 등으로 썩으면 거름으로 사용한다. 보리밭 매기를 ‘지심맨다’고 한다.

⑤ 수수

수수는 대개 콩밭이나 서숙밭 사이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종할 때부터 콩이나 서숙씨앗에 섞어서 뿌린다. 수수는 콩밭이나 서숙밭 사이에 심겨 있으므로 특별한 손질이 필요 없으며, 수확 때에는 이삭만 잘라서 텃돌이나 홀태에 두드려서 알곡을 장만한다. 도리깨질하지 않는 까닭은 수솟대로 빗자루 따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⑥ 조[서숙]

대개 6월경에 파종을 한다. 쑥이 튼 후 밭고랑의 풀을 뽑아 주는데, 이를 ‘지심맨다’고한다. 또 밭고랑을 북돋우며 서숙을 속아 주는데 이를 ‘아시숙는다’고 하며, 서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북을 주는데 이를 ‘아시타묻는다’고 한다. 9월경에 수확을 하며 타작은 낫으로 이삭만을 잘라서 도리깨질을 한다.

⑦ 콩 농사

콩은 논두렁에 심기도 하고 서숙[조]처럼 파종하기도 한다. 곡우가 지난 후 4월 중순 무렵에 보리 수확을 끝낸 밭에다 콩을 심는다. 씨를 뿌리고 호미나 밀개로 흙을 북돋아 주며 수시로 김을 매준다.

(3) 삼농사와 작업과정¹⁵

울진 북면 등지에서는 길쌈할 삼[대마]을 강원도 정선 등지에서 소금이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구입해 온다. 밭에 재배된 대마를 밭떼기로 구매하고 수증기로 쪄서 삼을 벗겨 오는 작업을 일컬어 “삼도부한다” 또는 “삼머슴산다”는 말로 표현한다. 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보행으로 행선지까지 3일 걸린다.
- 삼밭을 선택하고 흥정하는데 6, 7일 걸린다.
- 대마를 벨 때 5, 6마지기 되는 밭을 3, 4일 걸려서 벤다.
- 외지의 여인네들이 삼이삭을 줍는데, 대마 길이에 맞추어 삼단을 묶는다.
- 묶인 대마단을 삼굴로 운반한다.
- 삼굴에서 삼을 친다. 해마다 처음 삼을 찔 때 고사를 지낸다. 이를 ‘삼고사’지낸다고 한다.

<표 1> 삼굴의 공정 과정

순서	화통[불구덩이] 작업 내용	삼굴작업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나무를 다섯 겹, 여섯 겹 쌓아 젠다. • 사방 1尺[높이 1尺×나비 1尺×길이 1尺]의 차돌 40~50개를 쌓아 장작이나, 생소나무 위에 놓는다. [아궁이가 막혀 있다. 삼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로 막아 놓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을 젠다.[어긋지게, 삼+풀+삼+풀+삼과 같이] • 수증기가 화통에서 삼굴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통로 공간을 확보한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을 지핀다. • 아침 7시쯤에 불을 지핀다. 이어 9시간가량 불을 땐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풀을 덮는다.[수증기가 삼굴으로 잘 들어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풀을 30 지게 분량 정도 덮는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준비해 둔 흙을 덮는다. [물 준비 : 향아리 10개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을 능처럼 쌓아 덮는다.[수증기 차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북 방향으로 여섯 군데 정도의 물을 부어 넣을 물구멍을 낸다.[기술자 담당]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구멍을 다시 생풀로 만든 덮개로 메운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열고 물을 붓는다. [벼락 치는 소리가 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룻밤이 지난 이튿날 오후에 삼굴을 파낸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가에서 짠 삼을 물에 담근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쯤 후에 건져내어 삼 껌질을 벗긴다.

15. 삼농사의 작업과정은 울진군·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0, 『울진의 문화재』에 실린 내용을 발췌, 요약했다.

(4) 화전의 작업과정¹⁶

1963년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울진군 내의 화전 농가는 36가구이다.

1940년대에 금강송면[당시 서면] 소광리에 분포된 화전농가¹⁷인데, 십이령(十二嶺) 고갯길 연변의 샛재골에 3가구, 대광천을 따라 다리골에 3가구, 용소골에 밀양 박씨 4가구, 삿갓봉골에 2가구, 용소골 개천과 삿갓봉 개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5가구가 살았다.

화전은 산의 경사가 완만한 15도 내지 20도의 경사지에 밭을 일구는 것이 보통이다. 한떼 기의 면적이 700~800평이 보통이며, 큰 밭은 2천여 평에 달한다. 화전의 경작 순서는 토지를 선정하고,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우고, 2~3일 뒤에 괭이로 골[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파종한다. 화전의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의 선정

화전의 토지선정은 땅의 모양새, 바람, 햇볕, 강우량 등의 자연조건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화전 대상지로 선정되는 산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토지를 염두에 두면서 선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 수목의 성장이 왕성한 토지이면서 개간한 적이 없는 곳
- 낙엽 등 부식토가 풍부한 곳
- 완경사지, 특히 산록의 충적토로 표토가 깊고 비옥한 곳
- 남면이나 동면을 향하여 있는 곳
- 자갈이 적고 표토가 깊으며 비옥한 곳

소광리의 농민은 비록 경작지에 따라 3~4농가로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한 곳에서 20~30년을 정주하면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화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논과 숙전(熟田)¹⁸에서 한 해 농사의 1/2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가로써 화전은 생산의 보조수단이었다고 김달수씨는 말한다. 토지선정이 끝나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해 밭에 불을 지른다.

② 불지르기

화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먼저 그 산지 내의 큰 소나무와 잡목을 벌채한다. 건축용재나 연

16. 본 글에 실린 화전농업의 작업에 관한 내용은 울진군·안동대학 민속학연구소, 1990, 『울진의 문화재』에 실린 글을 발췌, 요약했다.

17. 본 지도작성은 김달수(72, 남, 금강송면 소광리)씨의 기억에 의존했다.

18. 해마다 농사짓는 밭.

장감 또는 연료용으로 쓸 것만 반출한다. 연장으로 톱과 도끼가 이용되며, 장정 4~5인이 동원된다. 온갖 관목, 예컨대 작은 잡목과 넝쿨 그리고 풀을 베는 작업을 포함해서 3일간 4~5인이면 1천여 평 또는 1천5백 평 규모의 팔밭(山田)을 준비할 수 있다. 산촌의 농사는 평야농사처럼 공동작업이 드물게 있으나, 화전의 개간작업과 장만은 반드시 협업으로 이뤄진다.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을 놓는 시기는 보통 봄이며, 초여름에 하는 수도 있고 드물게는 가을에도 한다. 바람 없는 날을 택하여 불을 붙이면 온종일 규모 큰 밭은 2~3일간 탄다. 대부분 밭 경계 윗부분부터 아래쪽으로 서서히 태워 내려오다가, 약 3분의 2가량 타면 아래쪽에서 맞불을 놓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진화되면 타다 남은 나무들을 모아두거나 다시 태운다. 임야 쪽 경계 지역에 20자 이상의 안전지대를 확보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③ 개간과 파종

화전농법에서 밭을 일구는 작업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밭에서 하는 것처럼 우마를 이용한 쟁기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경전(耕田)을 하는 예도 있지만, 첫해에는 팽이나 호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의 생산을 보면, 주로 남자는 팽이로 대충 골을 만들고, 여자는 조의 씨앗을 뿌리고 묻는다고 했다.

그 첫해는 표토를 약간 파고 그다음 해는 약간 더 깊이 파고, 3년째는 더 깊이 파는 사이에 나무뿌리는 제거되고 농토로서 구실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화전농의 특징은 숙전과는 달리 퇴비를 마련하여 밑거름으로 투입하지 않고, 나무나 풀이 남긴 재와 낙엽이 쌓여 생긴 부식토 등이 지력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6~7년 동안 일모작으로 경작한다. 토질이 좋고 표토가 깊으면 부분적으로 숙전으로 개량되기도 한다. 파종 시기는 자연법칙의 시기를 이용했다 한다.¹⁹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절후표[책력]에 의존했지만, 화전 농민들은 지역의 기후, 온도 및 주변 식물들의 개화 상태를 보고 파종 시기를 택했다고 한다. 곧 서숙은 조팝나무꽃, 콩은 콩꽃나무, 팥은 팥꽃나무꽃이 필 무렵에 파종했다고 한다.

④ 김매기 및 수확

화전 첫해는 잡초가 거의 없어 베어낸 나무뿌리에서 움돈이 하는 나뭇가지 등을 낫으로 베는 정도로 간단하다. 그 이듬해부터는 잡초가 많이 돋아나서 호미로 김매기를 해야 하는데 밭이랑이 없는 전파식 밭이라 앉아서 김매기 할 수 없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19. 제보자 : 주보원 (68, 남, 금강송면 전곡리).

김매기 작업은 대체로 여자들의 몫이고, 주로 품앗이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잡담과 노래도 부른다.

수확은[거둠이라고 함] 서리가 내리기 전, 모두 베어서 탈곡 때까지 얼리기를 만들어 말리기를 겸해 조, 팥, 콩 등을 보관한다. 감자는 캐서 습기를 말린 후, 바로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보관한다.²⁰ 옥수수는 송이를 떼어 송이 껍질로 두 송이씩 묶어 덕에 달아 말린다.

⑤ 짐승으로부터 곡물 지키기

곡식의 결실기가 되면 짐승들의 습격을 방어하는데 전 가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멧돼지 떼가 한번 습격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일 년 내내 땀 흘려 가꾸어 온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멧돼지는 조, 콩, 팥, 옥수수, 감자 등 모든 곡류를 먹어 치우며, 토끼는 콩을, 오소리와 산까치는 옥수수를 먹는다. 여기서 방어 수단으로 밭 주변에 움막을 짓고 밤새도록 지킨다. 밭 주위를 순찰하거나 기물을 이용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어 산돼지를 겁먹게 하여 쳐기도 한다.

2. 농기구

1) 가는 연장

① 가래

가래는 흙을 파헤치거나 정리할 때 사용하는 연장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연장이다. 날을 끼운 넓적한 몸에 긴 자루를 박고 몸 윗부분의 양쪽에 줄을 맨 형태이다. 대개 세 사람이 작업하며 밭이랑을 일구거나 도랑을 치고, 논둑을 쌓거나 깍을 때 사용한다. 이외에 삽과 같이 흙을 넣어서 떠낼 때 사용하는 ‘종가래’와 팽이처럼 흡사하게 생긴 「화가래」가 있다.

② 팽이

팽이는 주로 포전을 일굴 때나 황무지를 개간할 때, 또 구덩이를 팔 때 주로 사용한다. 팽이는 일반적으로 ‘ㄱ’자형의 넓적한 쇠 끌을 자루에 박은 것이다. 팽이의 종류로는 넉팽이, 나뭇팽이, 가짓잎팽이, 왜팽이, 삽팽이, 곡팽이 등이 있다.

20. 울진군·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0, 「전내마을의 삶」『울진의 문화재』를 참고했다.

③ 따비

따비는 가로 대를 발로 밟아 날 끝을 땅에 박아 뒤쳐서 땅을 일구는 연장이다. 따비의 종류로는 주걱형 따비, 말발굽형 따비, 쌍날형 따비가 있다.

④ 쇠스랑

좁고 뾰족한 날 세 개를 나란히 낸 팽이형의 농기구이다. 쇠로 갈퀴 모양을 만들고 「ㄱ」자로 구부러진 한 끝에 긴 나무 자루를 박았다. 날은 세 개, 혹은 두 개, 또 그 이상의 것도 있다. 논둑을 까고 새로 불일 때나, 밭을 파고 흙덩이를 쳐서 반반하게 고를 때 사용하며, 퇴비를 쳐낼 때도 요긴하게 쓰인다.

⑤ 쟁기

쟁기는 따비에서 발전한 연장으로 갈이용의 대표적인 농기구이다. 쟁기의 골격은 술과 성에로 이루어지며 한 마루가 이를 고정하고 있다.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술바닥에는 쇠판을 대어 이를 보호한다.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홀쟁기'와 두 마리가 끄는 '겨리쟁기'가 있다.

2) 삶는 연장

① 곰방메, 고무래, 끙계

곰방메는 논밭의 흙덩어리를 깨뜨리거나 고를 때, 또는 씨뿌린 뒤 흙을 덮을 때 사용하는 자루가 긴 나무메이다. 고무래는 곰방메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밭고랑의 돌 따위를 굽어모을 때 사용한다. 또 곡식을 말리거나 널 때도 쓴다. 대나무로 발을 만든 것을 죽파(竹杷), 나무로 해박은 것을 시파(柴杷)라고 한다. 끙계도 곰방메나 고무래처럼 씨뿌리기 전에 흙을 고르고, 모 뿌린 뒤 흙을 덮을 때 사용한다.

② 나래

나래는 그 쓰임과 모습이 써레와 비슷하다. 대개 논바닥 표면의 높낮이가 일정치 않은 논을 고르는 데 쓰이며, 물을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번지

번지는 써레질을 한 뒤에 써레 발에 보통 직사각형 꼴의 널판을 대어서 사용하는 연장이다. 번지는 써레로 충분하게 으깬 흙의 표면을 다시 편편하게 고를 때 쓴다.

④ 써래

써래는 논에 물을 대어 갈고 난 뒤 흙덩이를 잘게 고르는 기구이다. 써래는 축력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기구로서, 잘 터지지 않게 향나무나 느릅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로 바탕을 만들고 밤나무 따위로 말뚝처럼 깎은 밭을 빗살처럼 나란히 꽂는다. 양 끝에서 두 번째 밭은 위로 뚫고 나와 손잡이 가로나무에 연결되는데 이를 ‘직살’이라고 한다. 써래의 밭은 흙에 걸려 곧잘 부러지기 때문에 미리 여벌을 준비하여 둔다. 써래의 종류로는 마른써래와 공이써래, 고써래, 평상써래 따위가 있다.

3) 씨뿌리는 연장

① 다래끼, 종다래끼

다래끼는 짚이나 싸리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밭에 씨를 뿌릴 때 달아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또 나물을 캐어 담거나, 밭작물을 수확해 담을 때도 쓰인다. 종다래끼는 ‘씨앗망태’라고도 하며, 굴, 팥, 감자 따위를 심을 때 씨앗을 여기에 담아서 뿌린다.

4) 김매는 연장

① 호미

호미는 종자를 심거나 김을 맬 때 쓰이는 중요한 연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으로 갈수록 호미 날의 자루가 넓고 길며, 남쪽일수록 날이 가늘고 자루도 짧아진다. 호미는 밭매기나 논매기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해촌마을에서는 미역짬을 매거나 해산물을 채취할 때 호미를 사용한다.

5) 거름을 주는 연장

거름을 주는 연장으로는 오줌장고, 똥장고[울진지역에서는 똥장분, 오줌장분이라 부른다.], 삼태기, 소매구시, 개똥삼태기, 새갓통 따위가 있다. 이중 오줌[똥] 장분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개똥 삼태기는 거름이 될 만한 개똥이나 쇠똥을 굽어모아 담을 때 사용하는 용구이나, 소매구시는 구유[소여물통]와 모습이 흡사하나, 오줌을 받아놓는 용구이다. 울진 지역에서는 대개 오지독에 오줌을 받아 사용했다. 소매바가지, 귀때동이, 삼태기, 새갓통 등은 거름을 담아서 밭에 뿌릴 때 쓰이는 용구이다. 단, 거름을 찍어서 운반할 때 쓰이는 것으로는 ‘거름대[거른대]’가 있다.

6) 물을 대는 용구

① 두레박, 타래박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방형의 물바가지와 긴 줄로 구성되어 있다. 대나무로 긴 자루를 만든 것을 「타래박」이라 한다.

② 물지게

나무로 만든 물통을 긴 막대기로 끼어 어깨에 메고 물을 길어 나르는 기구이다. 염전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③ 쌍두레, 맞두레

물을 펴 올릴 때 쓰는 기구이며, 물그릇과 네 가닥의 줄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물을 펴 올린다.

④ 용골차

두레박 여러 개를 잇달아 설치하고, 2인 이상의 장정들이 발판을 딛고 돌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기구이다.

⑤ 용두레

두레는 긴 장대의 한 끝에 두레박을 달고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다음 노질을 하듯이 손으로 조정하여 물을 펴 올리는 기구이다. 긴 채를 「몽채」라고 하며, 대개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흙을 파서 만든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펴 올릴 때 쓰인다.

⑥ 흠통

대개 소나무나 박달나무의 속을 완전히 파내어 만든다. 도랑 같은 곳에서 논에 걸쳐놓고 물을 받을 때 사용하기도 하며, 울진의 산간 내륙지방에서는 보(洑)의 기능으로 쓰였다.

7) 거두는 연장

곡물을 거두는 연장으로는 낫과 전지가 있다. 낫은 곡물을 벨 때나 땔감 따위를 마련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낫의 종류로는 조선낫, 왜낫, 반달낫[우명낫], 버들낫, 벌낫, 밀낫, 톱날 낫 따위가 있다. 전지는 'Y'모양으로 가지가 벌어진 긴 나무 끝에 조그만 망태기나 주머니를 단 것으로, 감이나 배 따위의 과일을 딸 때 쓰인다.

8) 터는 연장

① 개상, 텃돌

개상은 벗단이나 보릿단을 들고 후려쳐서 곡식을 털 때 쓰는 기구이다. 대개 적당한 굵기의 통나무를 엮어 만든다. 텃돌은 돌로 만든 것을 말한다.

② 담족식 탈곡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통에 강철로 많은 이 모양을 만들어 박아 발로 밟으면서 곡물의 날알을 터는 기구이다.

③ 도리깨

도리깨는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서 알갱이를 떨어내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가름한 작대기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아서 돌게하고, 그 끝에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의 가늘고 긴 가지를 잡아빼서 휘둘러 치면서 곡물의 날알을 얻는다.

④ 벼훑이

벼훑이는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솟대 등으로 집게 모양을 만들어 그 틈에 벼 이삭이나 곡식 이삭을 끼워 훑어내는 가장 원시적인 기구이다.

⑤ 홀태

강철이나 무쇠로 빗 모양의 살을 나란히 세워서 고정한 뒤, 나락이나 곡물을 훑어서 날알을 얻은 도구이다.

9) 고르는 연장

① 풍구, 바람개비, 키

풍구는 매우 초보적인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데, 쌀, 보리 등 무술의 쭉정이, 겨, 먼지 등을 털 때 사용한다. 바람개비는 네 개의 날개를 X자 모양으로 달아서 바람을 일으켜 쭉정이나 검불을 날려 보내는 데 쓰는 기구이다. 키는 곡식이나 다른 물건을 깨불려서 쭉정이, 검부러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대개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촘촘히 엮어 만든다.

체체와 셋다리는 한 조를 이루면서 곡물의 가루를 곱게 쳐낼 때나 술, 누룩 등을 거를 때 사용한다.

10) 말리는 연장

곡물을 털고 골라서 저장하기 위해 햇볕에 말릴 때 사용하는 용구로 명석, 도래방석, 발, 거적, 얼루기 등이 있다. 명석과 도래방석은 짚으로 만든다. 발은 싸리나 거듭대를 나란히 엮어서 만든 것으로, 고추나 가지 등 밭작물을 말리는 데 쓴다. 얼루기는 서까래 같은 둥글고 긴 나무 여러 개를 원반 모양으로 위로 모아서 묶고, 아랫부분은 벌려서 곡식단을 말리는 데 쓴다.

11) 저장용기

많은 곡물을 저장하는 기구로 뒤주나 곳간 등이 있다. 대개 뒤주나 곳간에는 정미하지 않은 곡물을 보관한다. 이외에 갈무리 연장으로는 가마니, 중태, 독, 채독, 밤우리, 소쿠리, 광주리, 뒤옹박[봉생이] 따위가 있다. 채독은 산간지대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싸리나무로 배가 볼록하도록 엮어 만든 그릇이다. 봉생이는 짚으로 둥글게 엮은 것으로 보통 곡식을 갈무리할 때 사용한다. 뒤옹박은 박[고지]을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구멍만 뚫거나 베어 속을 판 뒤, 씨앗 따위를 보관한 연장이다.

12) 찧거나 가루를 내기 위한 연장

① 매통, 돌학, 절구

매통은 굵은 통나무 두 짹이 서로 닿는 마구리에 뾰족으로 파서 벼의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한다. 돌학은 대개 자연석을 우묵하게 판 것과 자배기 모양의 오지그릇을 우툴두툴하게 구워낸 유형이 있는데 적은 양의 곡물을 찧거나, 고추, 깨 등 양념류를 빻을 때 사용한다.

절구는 우묵하게 안을 판 확 속에 재료를 넣고 공이로 곡식을 찧을 수 있도록 만든 용구이다. 공이는 대개 나무로 만드나, 돌공이나 쇠공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② 방아

방아의 기능은 대개 바수기, 찧기, 빻기, 쓸기, 갈기, 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 방아의 종류로는 디딜방아, 물방아, 연자방아 등이 있다. 디딜방아와 연자방아는 주로 알곡과 가루를 내는 데 쓰이는 연장으로서, 울진지역에서는 대개 디딜방아가 대종을 이룬다.

13) 곡물 운반을 위한 연장

① 망태기, 주루막, 다루끼, 광주리, 뼈리

망태기는 대개 가는 새끼나 노를 엮어서 만들며 곡물, 감자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인다. 특히 쇠꼴을 담아 나르는 망태기를 ‘꼴망태’라고 부른다. 주루막은 염낭 모양이나 네모난

꼴로, 주등이를 조일 수 있게 하였으며 주로 가늘게 꼳 새끼를 촘촘하게 엮어 만든다.

다루끼는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만든다. 울이 깊고 바닥이 넓고 평평하다. 광주리는 다래끼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서 밑부분은 편평하며 운두는 그다지 높지 않다. 대개 싸리나무나 대나무로 만든다. 주로 밭작물이나, 새참 따위를 나를 때 쓰인다. 띠리는 부녀자들이 머리에 짐을 이거나, 물을 길어 올 때 머리 위에 얹혀 놓고 짐을 이던 용구이다. 대개 깊으로 단단하게 만들었다.

② 옹구, 거지게, 발채, 길마

옹구는 나무를 ‘目’자형으로 만든 뒤 양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소 길마 위에 싣게 한 기구이다. 주로 흙이나 재 따위를 운반할 때 사용하였다. 거지게는 일반 지게의 아랫부분이 없는 형태이다. 두 개를 한 쌍으로 하여 양쪽의 머리 부분을 연결해 소길마 위에 걸치게 돼 있다. 주로 큰 목재 따위를 운반할 때 쓴다.

발채는 옹구와 같은 나무 뼈대에 새끼줄을 늘어뜨린 뒤, 바닥을 밀봉한 기구이다. 주로 볏단이나 장작과 같은 부피가 나가는 짐을 싣는다. 길마는 소등에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바탕용으로 얹은 기구이다. 두 개의 나무쪽을 굽은 거멸못으로 연결해 「V」자 형으로 만들어 앞뒤에 얹어놓고 네 개의 마룻대로 연결한 것이 기본형태이다.

③ 지게

지게는 나무를 깎아 만들며, 몸과 가지가 한 몸을 이루도록 짜 맞춘다. 쟁기지게는 쟁기나 곡괭이를 논밭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든 지게이다. 바소거리지게는 농가의 필수품으로서, 이것으로 곡물이나, 거름 등 농사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져나른다. 바지게는 ‘바[밧줄]’로 짐을 들러 잡아당겨 지탱하는 방식의 지게로 울진지방에서는 「십이령길」을 통해 경북 봉화 소천과 춘향 등지로 이동하던 ‘부보상[바지겟꾼]’ 등이 주로 사용하던 지게이다. 이들 부보상을 ‘선 채로 쉰다’하며 선질꾼이라고 부르며, 당시 이들이 영남 내륙인 봉화, 영주지역으로 유통하던 물산은 주로 울진지방에서 생산되던 ‘토염(土鹽)’과 ‘돌과[마른 돌미역]’ 등이다. 이 때 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이용한 유통로인 십이령길을 ‘소금과 미역의 길’로 부른다.²¹



<그림 25> 송이 망태기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1. 남효선, 2018, 『미역과 소금의길, 울진십이령』을진군

14) 가축을 기를 때 쓰는 연장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연장으로는 마굿간, 작두, 구유[쇠여물통], 가마솥, 쇠죽바가지, 어리, 등우리 등이 있다. 구유는 굵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서, 여기에 소의 여물이나 쇠죽을 담아둔다. 쇠죽바가지는 손잡이가 달린 바가지 형태로 쇠죽가마에서 쇠죽이나 여물을 구유에 펴담을 때 사용한다. 이를 ‘쇠남박’이라고도 한다.

작두는 소, 말 따위에게 먹일 풀, 콩깍지, 짚, 고구마 줄기, 수수대 등 여물을 썰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작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밭작두와 혼자서 작업이 가능한 손작두가 있다. 어리와 등우리는 대개 대나무나 짚 따위를 만드는데 닦이나 병아리를 기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등우리는 대개 처마 밑이나 마구간의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

15) 직물이나 가마니 등을 짜는 연장

① 가마니틀

가마니틀의 형태는 굵고 두툼한 나무토막에 장방형의 틀이나 한 개의 가로대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토막에 기둥을 세워 그 끝에 둑근 도리를 끼운 통이다. 가마니 통은 바탕, 가로대, 기둥, 도리, 벼레, 바리, 걸대, 바늘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② 물레

솜이나 텸 따위의 섬유를 잡아 실을 뽑는 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나무로 된 여러 개의 물레살을 동줄로 얹어 보통 6각이나 8각의 둘레를 만들고, 그 가운데 굴동을 박아 꼭지마리로 인다. 물레 테로 물레바퀴와 가락을 걸어서 돌 때, 고치에서 실이 드려지게 된다.

물레는 손잡이인 꼭지마리, 동줄, 굴동, 바탕, 설주, 물레살, 물레바퀴, 물렛돌, 괴머리, 가락 등으로 구성된다.²²

③ 베틀

베틀은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노동으로 베, 명주, 모시, 무명의 씨줄과 날줄로 옷감을 짜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목재로 만들며, 두 개의 누운 다리에 구멍을 뚫어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우고 가랫장으로 고정했다. 여기에 도투마리를 얹고 잉아에 건 뒤 말코에 걸어 앓을 때 부티를 허리에 찬다.

베틀의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²³

22. 베틀의 부분별 명칭은 박대순의 『농기구』에서 발췌, 요약했다(박대순, 1990, 『농기구』, 대원사, 96~99쪽).

23. 박대순, 1990, 위 책, 101쪽

- 용두머리 : 베틀 앞다리 위쪽에 있으며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고 눈썹대와 쇠꼬리를 끼우는 나무이다.
- 눈썹대 : 용두머리 두 끝에서 앞으로 내뻗친 가는 막대기이다.
- 눈썹놀이 : 눈썹 대의 끝부분으로 눈썹 줄이 달려 있다.
- 눈썹줄 : 눈썹대 끝부분이며, 여기에 잉앗대를 건다.
- 잉아 : 베틀의 날실을 끌어올리도록 맨 실이다.
- 잉앗대 : 눈썹줄에 매달아 잉아를 걸어 놓은 대나무이다.

④ 씨아

목화의 씨앗을 빼는 기구이며, 대개 장방형의 두꺼운 나무토막을 몸체로 두 개의 기동을 박고, 아래쪽에 작은 막대기로 가로질러 고정했다. 가락은 참나무 등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가락의 한쪽을 텁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귀를 냈으며 몸체는 원형이다. 오른손으로 씨아손[꼭지마리]을 돌리면서 왼손으로 목화를 가락의 틈새로 매기면 목화씨는 앞으로 떨어지고 솜은 뒤로 빠진다.

씨아를 이루는 부분별 명칭은 단가락, 장가락, 귀, 쪘기, 씨아손, 씨아바탕, 앓은깨, 씨아기동 등이다.²⁴

16) 기타 생활 연장

① 갈퀴

울진지역에서는 「깍지」라고 부른다. 주로 땘감용 나뭇잎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농기구의 하나이다. 여러 갈래의 대쪽이나 싸리 철사 등으로 만들며, 끝부분은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② 넉가래

대개 곡식을 타작할 때 곡물을 한곳으로 모을 때나, 겨울철 눈(雪)을 칠 때 사용 한다. 큰 널빤지를 가래와 자루가 한 몸통이 되도록 깎아 만든다. 가래 바닥은 넓적하며 자루는 대개 둥근형이다. 울진지역에서는 「목가래」라고 부른다.

24. 박대순, 1990, 위 책, 103쪽

③ 도롱이, 삿갓

전통사회에서 사용하던 우장(雨裝)을 말한다. 도롱이는 벗짚이나 보릿짚, 밀짚 또는 떠(茅)로 만들며 속은 엷고 겉은 재료를 늘어뜨린 것으로 어깨에 걸쳐 둘러 입는다. 대개 삿갓과 함께 받쳐 쓴다. 삿갓은 대나무나 갈대로 엮어서 만든 우장용 연장이다. 원뿔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여섯 모가 나 있으며, 우산처럼 양어깨를 가릴 수 있고 속에는 미사리[머리에 쉽게 쓸 수 있도록 삿갓 안쪽에 만든 둥근 테]를 달아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④ 말, 되, 흡

말, 되, 흡은 곡물이나 소금 또는 액체를 쟈 때 사용하는 도량형의 한 단위이자, 이를 가늠하는 그릇이다. 대개 나무로 만들며, 장방형의 모습을 띤다. 말은 되의 10배를 뜻하며, 이를 대두(大斗)라 하고, 이의 절반을 소두(小斗)라고 한다. 또 되는 10흡을 말하며 이를 대승(大升)이라 하고, 이의 절반을 소승(小升)이라 한다.

⑤ 메[떡메]

물건을 내리칠 때 쓰는 연장이다. 굵고 짧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 중간에 구멍을 뚫어, 여기에 자루를 끼웠다. 주로 말뚝을 박을 때나 땅을 다질 때 사용한다.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떡메’라고 부른다.

제2절 어로

1. 어로기술

1) 어로기술의 역사²⁵

(1) 개요

울진지역의 해안선은 서해나 남해에 비해 비교적 단조로우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까닭에 전통어로의 형태는 서남해의 그것보다 간단한 편이다.²⁶ 그러나 수산업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는 까닭에 이질적인 여러 구성요소가 시간상으로 병존하는 모습

25.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어로기술 변천사가 아닌 울진지역의 어로기술 변천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26. 김광언, 1987, 「수산」 『한국민속총합조사보고서』 경북편, 문화재관리국, 418쪽